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2019년 7월 23일 화요일

역경의 열매

‘기독교 교육의 선구자’ 주선애 장신대 명예교수 <32>

“황장엽 선생님, 하용조 목사님 위해 기도해주세요”

탈북자동지회 방문해 인사 나눈 뒤
매주 만두 등 북한 음식 만들어 전달
하 목사 병문안서 “예수 이름으로”

2002년 5월 제107주년 평양 정의여고 총동문회가 열렸다. 150여명이 몇몇 은사들을 모시고 여학생 시절의 추억을 더듬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당시 동창회 회장은 후배인 곽 선부 선생이었다. 곽 회장이 “우리 황장엽 선생님을 한번 찾아뵙는 게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 나는 놀라서 국정원에 계신데 그게 가능하다고 물었다. 그는 걱정 말라며 자기가 안내하겠다고 했다. 전 회장이자 정의학교 교사를 지낸 김명현 언니도 같이 가자고 했다.

황 선생님은 매주 토요일 오전에 잠깐 탈북자동지회에 나오셔서 탈북자들을 만나 위로의 시간을 갖는다고 했다. 우리 세 사람은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송파구에 있는 황 선생님의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은 작고 구석진 방이었다. 우리는 같은 고향 분이어서 인사드리려 왔다면 간단히 소개했다. 웃음을 보이진 않았지만 반기는 듯했다.

황 선생님은 평양상업학교를 다녔는데 어려서 양촌에서 자랐다고 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리 집이 양촌 가까이 있어서 자주 찾아가 늘던 곳이었다. 양촌과 가까운 곳에 숭의학교 숭실대 평양신학교가 있었고 서양 선교사자녀들도 많이 있었다. 어린 시절 기억이 새로워지면서 황 선생님이 가깝게 느껴졌다.

한편으로 ‘그 어려운 망명길을 혼자 떠나왔지만 여기서도 부자유한 생활할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힘들까’ 싶어 동정이 기기도 했다. 경호원들이 항상 방 안과 밖에서 지키는 국정원에서 숙식하는 건 그야말로 감옥 아닌 감옥이었을 것이다. 토요일마다 이 사무실로 북한 음식이라도 갖다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선애 장로회신학대 명예교수(앞줄 왼쪽 첫 번째)가 2009년 평양 숭실대 재건 모임에서 황장엽 전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세 번째), 방지일(네 번째) 박종순(다섯 번째) 목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나는 토요일마다 북한 만두와 북한식 콩비지, 장조림 등을 보자기에 정성스레 싸서 갖다 드렸다. 그 과정에서 이분이 주체사상을 버리고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거듭나면 북한의 어두운 세계를 빛나는 기독교 국가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사명감을 느꼈다. 예수를 핍박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사람 바울로 변했듯이 그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전도를 잘하지 못하지만,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은 연예인과 지성인들을 교회로 이끌며 전도에 탁월한 달란트를 보였다. 그래서 하 목사님에게 전화로 황 선생님 전도를 부탁하면서 토요일에 좀 찾아와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목사님은 기쁘게 받아들여 책을 가져오기도 하고 선물로 모자도 사 와서 황 선생님과 사귀기 시작했다.

당시 전주대 이사장이었던 하 목사님은 황 선생님을 전주대 석좌교수로 대우하며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목사님 아들의 결혼식에서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황 선생님이 경청하시더니 후하게 칭찬을 하셨다. 이때가 기회다

싶어 “선생님 이번 주일에 교회에 꼭 가서 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황 선생님은 끝내 침묵하셨다.

하 목사님이 아산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이다. 황 선생님이 병문안을 같이 가지고 해서 따라나섰다. 나는 입원실에서 두 분께 조금 무리일 것 같은 청원을 했다.

“오늘은 황 선생님이 하 목사님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한 다음에 하 목사님이 황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까 싶어 긴장되는 마음으로 황 선생님을 바라보는데 그분이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해 제법 기도를 하시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을 맺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제야 황 선생님의 마음에 조금 씩을 틔운 듯했다.

정리=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인터뷰 동영상은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홈페이지(kmib.co.kr/mission)와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 365

시험을 이기려면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통 363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본문

마태복음 4장 1~11절

말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시험이 다 있습니다. 숨을 쉬고 살 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거뜬히 이기셨습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첫째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4절) 사탄은 언제나 ‘떡’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돈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떡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떡의 문제를 외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경제문제, 재정문제를 소홀히 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과 예수님 말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이렇게 하여 주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앞에서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진

실함으로 그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경배’는 ‘머리를 숙이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10절)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신앙생활은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함으로 시작됩니다.

신령기 6장 1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 할 것이라.” 그 어떤 시험 앞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런 신앙고백으로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말씀 앞에 진실하며,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여 그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시험도 많은 우리 시대에 시험을 겪으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말씀 앞에 진실하며,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여, 시험 앞에서도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이원태 목사(안동목동교회)

오늘의 설교

마태복음 21장 28~31절

새로운 삶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맏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맏아들은 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같은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지요.



홍성필 목사

일본
이카호중앙교회

다시 보면 맏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따르겠다고 대답했지만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아주 버르장머리 없게 거절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맏아들의 경우 간다는 말의 ‘대답’과 안 갔다고 하는 ‘행동’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의 경우에는 안 가겠다는 ‘대답’과 갔다고 하는 ‘행동’ 사이에 바로 이 ‘뉘우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후회이고, 다음은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면 너무나 후회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아예 지워버리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역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 10~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껏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주셨는데도 잠깐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자기 멧대로 이집트로 갔다가 하마터면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겪고 맙니다. 이는 남자로서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윗 왕은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고,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더라도 우리처럼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돌아켜 생각해보면 역시 당시 본인들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아 그때는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한탄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거절을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님 말씀대로 포도원에 갔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앞서 이 뉘우침에는 후회와 회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다면 후회와 회개는 무엇이 다를까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두 사도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가 달랐습니다.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심히 통곡할 정도로 자신이 부끄러웠을 것이지만 거기서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후회에서 멈추면 주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고 돌아온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이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까. 후회하십시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너무 늦은 것 같습니까. 아직은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면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후회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과거의 내 모습을 뉘우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오늘 지금 이 시각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내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주님께 기쁨과 영광과 친총을 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군마현 시부카와시에 있는 이카호 중앙교회는 1994년 뿌려진 복음의 씨앗 카사카중앙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주님께 영광이라는 가치 아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